

Thomas Fleischman, *Communist Pigs: An Animal History of East Germany's Rise and Fall*. Seattle: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2020. 268 pp.

김성화†

와이어하우저 환경 도서(Weyerhaeuser Environmental Books) 시리즈의 한 권으로 출간된 이 책은 저자 플라이슈만(Thomas Fleischman)이 2013년 뉴욕대학교에 제출한 박사학위 논문을 발전시킨 것이다. “아기 돼지 삼형제: 동독의 개발, 오염, 녹화, 1970-1989”¹라는 박사학위 논문의 제목과 이 책의 제목 모두에서 돼지가 언급되지만, 역사학과 박사과정 학생으로 논문을 준비하던 당시 플라이슈만의 관심사는 동물이 아니었다. 그는 애초에 독일 민주공화국(The German Democratic Republic, 이하 동독)의 공산주의 체제에서 형성된 산업형 농업(industrial agriculture) 시스템의 특성을 연구하길 원했다. 이를 위한 독일 아카이브에서의 자료 조사는 플라이슈만이 돼지에 대한 역사 연구에 흥미를 느끼게 만든 중요한 계기였다. 플라이슈만은 동독 정권과 관련된 자료의 “어디에나 돼지가 있었다”고 회고한다. 그는 점차 동독 정권의 농업정책에서 돼지 사육, 돼지의 분노 처리, 그리고 돼지고기 생산과 저장과 확보가 핵심적인 사안이었음을 알게 되었다. 평소 환경사 분야를 공부하며 동물을 주요한 분석 도구로 삼는 연구를 익히 접했던 것도 그가 연구 방향을 바꾸는 데 영향을 미쳤다. 이윽고 플라이슈만은 동물 중에서 개 다음으로 사람과 가장 오랜 기간을 함께 해 온 돼지의 생김새, 먹이, 서식지 등의 변화를 추적하면 인간 사회가 형성되고 변화한 방식 또한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됐다.²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 서울대학교, sunghwa@snu.ac.kr

¹ Thomas Fleischman, “Three Little Pigs: Development, Pollution, and the “Greening” of East Germany, 1970-1989” (Ph. D. Dissertation, New York University, 2013).

² 저자가 역사학과 교수로 재직 중인 로체스터대학교의 뉴스 센터(Newscenter)에서 진행한 다음의 인터뷰 참고. Sandra Knispel, “What Does East Germany's Rise and Fall Have to Do With Pigs? A Lot, Actually,” *University of Rochester Newscenter*, (2020.11.19).

출발한 저자는 학위논문 연구를 포함해 최근 10년 동안 동독을 사례로 하여 돼지와 인간 사회의 관계를 탐구해 이 책을 펴냈다.

Communist Pigs(2020)는 이상에서 언급한 저자의 관심사를 반영하여 동독의 농업 산업화와 돼지 사육 산업의 성장을 분석한 결과물이다. 저자는 냉전 시기 농업의 산업화 양상을 분석함으로써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이데올로기 간의 대립이 아닌, 미국식 산업형 농업 체계의 전 세계적 확산에 주목한다. 그에 따르면, 동독에서의 공장식 농장(factory farm)의 도입은 공산당 정권이 친서구 정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이뤄졌다. 덕분에 동독은 1970년대를 거치며 돼지고기 생산량에서 세계적으로 손에 꼽는 국가가 되었으며, 1981년에는 소련을 넘어 동구권 전체에서 가장 많은 생산량을 기록했다. 값싼 돼지고기를 대량으로 생산한 동독의 공장식 농장 운영 방식은 미국과 매우 흡사했으며, 두 국가는 세계 농산물 수출시장에서 경쟁 관계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저자는 이처럼 산업형 농업의 생산 체계가 동독에 정착하는 과정을 되짚어 보면, 이데올로기에 따른 산업 체계의 차이보다는 돼지고기 생산과 소비를 위한 국가 간의 교류가 뚜렷하게 드러난다고 말한다. 이러한 분석은 냉전 시기에 추진된 곡물 중심의 농업 산업화와 “녹색 혁명(Green Revolution)”을 사회주의 국가의 농업정책과 그에 반영된 이데올로기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기존 연구를 비판적으로 독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다.³

저자가 취하는 방법론에서 흥미로운 점은 농업과 환경 오염의 상관관계를 밝히는 방식에 있다. 저자는 미국식 산업형 농업의 도입 결과로 일어난 과거 동독에서의 환경 오염 문제를 분석하고, 다시 그를 바탕으로 현재 미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발생하고 있는 농업 산업화 폐해의 공통된 원인을 밝힌다. 그는 동독의 농업 산업화가 야기한 수질 오염 및 대기 오염, 그리고 그 영향으로 동식물과 사람이 입은 피해 등 복합적인 환경 위기의 이유를 단순히 공산주의 체제의 잘못된 정치·경제 정책이나 이데올로기에서 찾는 기존 시각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20세기 산업형 농업의 “세계적 부상(global rise)”이 동독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환경 오염을 일으킨 근본적 원인이기 때문이다(6).

<https://www.rochester.edu/newscenter/what-does-east-germanys-rise-and-fall-have-to-do-with-pigs-461942/> (2020.12.05 접속).

3 냉전 시기에 추진된 녹색 혁명을 중국의 과학정책과 이데올로기의 관계에서 검토한 연구로는 다음을 참고. Sigrid Schmalzer, *Red Revolution, Green Revolution: Scientific Farming in Socialist China*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16).

구체적으로 저자는 동독에서 돼지고기 생산에 필요한 집단농장과 공장식 농장의 발전 과정에서 유독성 거름(toxic manure)의 유출과 질소 비료의 과다한 사용에 따른 오염으로 인해 사람과 동식물이 겪게 된 질병에 주목한다. 그는 이러한 문제가 비슷한 생산 체제를 갖춘 다른 나라에서도 계속 발생하고 있으며, 대규모 가축 사육 시스템 자체가 근본적으로 개선되지 않는 한 유사한 환경 문제는 지속될 것이라고 말한다. 그런 점에서 동독의 돼지에 관한 이 책의 서사는 공산주의 돼지가 자본주의 돼지를 닮은 만큼, 자본주의 체제에서의 농업 산업화와 환경 오염의 미래 또한 동독의 역사와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경고를 담은 일종의 우화(寓話)이다. 만약 그렇다면, 동독의 유산은 통일 이후 현재 독일에 서의 환경 문제나 환경정책에 대한 재검토는 물론 비슷한 체제를 도입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문제를 되돌아볼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 책의 본론을 구성하는 총 7개의 장은 부제인 ‘동독 흥망성쇠의 동물의 역사(*An Animal History of East Germany's Rise and Fall*)’에서 알 수 있듯 동독에 산업형 가축 사육 시스템과 그에 맞춰 개량된 돼지가 도입되고, 돼지고기 생산량이 급격히 증가해 경제적 부흥을 맞은 때부터 농업정책의 실패와 사회주의 체제의 몰락까지를 다루고 있다. 저자는 산업형 돼지(industrial pig) · 정원 돼지(garden pig) · 멧돼지(wild boar)라는 세 종류의 돼지가 각기 다른 공간에서 번성하고 감소하는 상황을 통해 1960년대부터 1980년대 말까지 동독의 정치 · 경제적 흥망성쇠를 설명해 낸다.

산업형 돼지, 정원 돼지, 멧돼지는 외양은 다르지만, 생물학적으로는 모두 ‘수스 스크로파(*Sus scrofa*)’라는 하나의 종에 해당한다. 산업형 돼지는 1960년대부터 농업의 산업화를 추진하기 위해 해외에서 도입되었다. 값싼 돼지고기의 효율적 생산을 위해 들여온 산업형 돼지는 “곡물을 고기로 바꾸는” 일종의 기계와 같이 여겨졌다(77). 돼지고기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관건은 연료에 해당하는 사료를 값싸게 공급하는 것이었다. 동독은 서구로부터 저렴한 곡물과 사료를 대량으로 수입하고, 이를 통해 대량 생산된 돼지고기를 수출하며 점차 세계 농산물 경제에 편입되어 갔다.

이처럼 1970년대 농업 개혁으로 값싼 고기를 생산할 수 있게 되자, 동독 정권은 그동안 부르주아 문화의 일부로 간주하여 사회주의 체제에 위협이 된다고 생각했던 인민의 정원 소유를 사회주의 여가활동(socialist recreational activity)의 일환으로 허용하게 된다. 사람들은 개인 정원에서 채소뿐만 아니라 젓소

와 돼지 같은 가축을 기르곤 했는데, 1980년대 초 산업형 농장에서의 돼지고기 생산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정부는 정원에서 얻은 산물의 판매까지도 허가하기에 이른다. 또한 정부는 보조금을 제공해 소규모 정원에서 가정 생산(household production)을 늘리고자 했으며, 돼지고기 수출량 유지를 위해 1984년 ‘농업 가격 개혁(Agricultural Price Reform)’을 시행하여 농가에서 키운 정원 돼지를 비싼 값에 사들였다. 이는 공장식 축산에 의존하는 농업정책의 실패로 1980년대 동독의 식량정책에서 정원 돼지가 산업형 돼지를 대신하여 핵심적인 지위를 차지하게 되었음을 보여준다.

산업형 돼지를 기반으로 하는 정부 정책의 한계가 의도치 않게 가정 뒤뜰에서 정원 돼지의 확대로 이어졌다면, 숲에서는 ‘멧돼지의 창궐(the wild boar plague)’을 초래했다(146). 공장식 농장에서 달아난 돼지는 재조림(reforestation)이 한창이던 동독의 숲에서 야생 돼지와 섞여 무리를 이뤘다. 사육을 위해 개량되었다고 해도 불과 한 세대만 거치면 다시 야생의 형태로 되돌아갈 수 있는 돼지의 특성이 멧돼지 수가 급증하도록 만든 주요한 요인이었다. 또한 산업형 돼지에게 사료를 공급하기 위해 만든 방대한 사료작물 단일 재배(monoculture) 지대는 멧돼지에게도 풍부한 먹이를 제공하는 결과를 낳았다. 멧돼지는 숲에서 캠핑하는 사람들을 공격하고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것은 물론, 가축 사육 시설에 난입하여 전염병을 옮기는 등 여러 문제를 일으켰다. 이와 같은 1970-80년대 동독에서의 멧돼지의 창궐은 농업 산업화와 산림 보호정책의 “부산물”이라고 볼 수 있다(165).

이 책의 장점은 “동물의 역사(animal history)”라는 분석 도구로 동독 정권의 흥망뿐만 아니라 독일 사회 전반의 특성을 드러냈다는 데 있다. 저자는 돼지와 독일의 음식·정원·사냥 문화의 연관성을 밝히고, 그 전통이 사회주의 국가 동독에서의 돼지 사육 산업의 성쇠와 농업 및 환경정책의 영향 속에서 어떻게 유지되고 변모하였는가를 분석한다. 이는 공장식 축산에서의 대규모 돼지 사육은 농업 산업화 시기의 한 가지 특성에 불과하며, 그것이 돼지와 인간 사회가 연관되는 유일한 방식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저자가 제시하는 돼지와 다양한 문화의 접점은 동독의 사례를 사회주의 체제의 특성에 국한하여 이해하지 않고, 동독 정부 수립 이전부터 독일 재통일(reunification) 이후까지의 역사 속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한다. 즉 돼지의 역사는 독일 역사에서의 서로 다른 정치 체제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먼저, 저자는 돼지고기가 정부의 식량 자급 정책 이전에 독일 사람들에게 전통적으로 중요한 음식이었다는 점을 짚는다. 돼지고기 요리는 마을의 큰 행사에서 빠질 수 없는 음식이었는데, 1980년대 초 돼지고기 생산량이 급격히 낮아진 가운데서도 사람들이 정부가 원하는 가공류 고기나 소고기 등의 대체품을 거부한 데서 전통 음식으로서 돼지고기의 지위를 확인할 수 있다. 정부가 “돼지고기 위기(pork crisis)”를 극복하기 위해 정원에서 기른 돼지를 가족이나 지인과 나눠 먹지 말고, 국가에 판매하기를 호소한 까닭 또한 이러한 음식 문화와 관련된 것이었다(140).

돼지고기 요리가 독일인 모두에게 중요한 음식 문화였다면, 정원 돼지와 멧돼지는 각각 독일의 대중과 엘리트 문화를 대변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독일에서는 정원을 가꾸는 오랜 문화가 있었기에 사회주의 국가인 동독에서도 개인 정원을 가질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은 끊이지 않았다. 정부의 허가 이후 정원은 돼지의 사육 등 작은 규모의 농업 활동이 이뤄지는 공간이 되었으며, 동독 사람들은 다시금 개인 소유의 녹지 공간(green space)에서 “쉬거나, 놀거나, 일할 수 있는 권리”를 자연스러운 것으로 생각하게 되었다(15).

대중이 개인 소유 정원에서 휴식을 취했다면, 상류 계층(왕, 황제, 그리고 산업주의자와 나치 지도자까지)은 수 세기 동안 동물 사냥에 몰두했다. 동독 정권의 엘리트도 예외는 아니었는데, 이들은 산림 정책에 사냥을 위한 공간 확보와 야생 동물 관리를 포함시켰다. 일례로 동독의 농업 개혁과 친서구 정책을 추진했던 공산당 최고 권력자 에리히 호네커(Erich Honecker)는 특히 사냥에 열을 올렸는데, 이는 그의 권력과 남성성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이기도 했다.

이상에서 언급한 이 책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아쉬운 점이라면, 돼지의 사육과 돼지고기 생산 체계의 형성에서 과학기술적 요소가 어떠한 역할을 했는가에 대한 분석이 충실히 제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산업형 돼지를 통한 돼지고기 생산량 증가에서 동물 사육 전문가(breeder)의 역할은 무엇이었는지, 동독 전문가들이 서구의 전문가들로부터 배운 육종 지식은 무엇이었는지 등은 제시되지 않는다. 또한 공장식 가축 생산 시설의 도축 방식이나 생산된 고기의 운송과 저장에 필수적인 냉장 시스템의 구축이 어떻게 이뤄졌는지도 알아볼 수 없다.

그러나 이는 사람이 아닌 돼지를 중심에 두는 역사서술을 위해 저자가 의도적으로 선택한 결과로 보인다. 덕분에 동독의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라 세 종류

의 돼지가 새로운 먹이와 환경에 능동적으로 적응해 나가는 모습은 더욱 두드러진다. 이는 사람과 과학기술을 전면에 내세우지 않음으로써 돼지의 행위성(agency)을 부각한다는 점에서 동물의 역사에 주목하는 과학학 연구자에게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만약 저자의 말처럼 “돼지는 그 자신의 역사를 쓴다(pigs make their own history)”고 할 수 있다면, 사람과 사람이 만든 과학기술이 거기서 차지하는 위치는 지금까지와 다르게 생각되어야 할 것이다(16).